

“유달예술촌, 시민들 문화공간으로”

목포시 옛 달성초교 부지에 8월 착공 시민단체 “소규모 ‘문화 전당’ 꾸며야”

목포시가 유달예술촌(옛 달성초교) 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를 소규모 ‘예술의 전당’으로 꾸며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현재 입주해 있는 예술단체들을 위한 공간만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거듭 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목포시는 “옛 달성초교 본관에 대한 철거용역이 진행중”이라며 “오는 6월말까지 철거를 마치고, 4월 초 철거 용역과 병행해 신축 용역을 발주

해 빠르면 8월부터 신축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또 시는 이달 말까지 각계 관련 전문가들로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예술단체의 요구사항 등을 수렴해 전적으로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도시개발 사업단 관계자는 “유달 예술촌 신축사업에는 총 사업비 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국비 17억5000만원 등을 예산에 확보된 35억원으로 우선 본관건물을 먼저 신축하고, 극단 ‘갯돌’과 서각협회가

가 입주해 있는 건물 등은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목포시의회 이방수 의원은 “무엇보다도 신축 문제는 예술촌의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며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이 와서 공연과 전시도 보고, 목포시민들의 체험거리도 있게 공연장·전시장·체험장 등을 고루 갖춘 소규모 ‘문화의 전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이 돼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먼저 내용을 구상한 뒤 실시계획에 들어가야만 예술성도 살리고 친환경적으로 꾸며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목포문화재단 정태관 대표는 “기존의 문화 콘텐츠에 대한 사고를 과

감히 버리고 차별화 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목포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과 연계해 목포 고유의 문화예술을 콘텐츠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예를 들어 외지 문화예술인들이 목포를 방문해도 호텔이나 모텔을 제외하고는 머물 곳이 없어 인근 해남이나 진도로 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들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창작 스튜디오나 레지던스 프로그램 같은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달 예술촌에는 현재 문화의 집(YMCA), 서각협회, 시립국악원, 연예협회, 극단 ‘갯돌’, 남도문화예술 네트워크 등 관련 단체들이 입주해 있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진도 바닷길 축제 4월 7~9일 열린다



‘제34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오는 4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개최된다.

고군면 회동리와 의신면 모도리 사이 2.8km의 바다가 너비 40~60m로 갈라지는 현상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꿈을 이루는 신비의 바다’란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이곳은 ‘국가 명승지 제9호’로 지정돼 있다.

군은 사업비 68억원을 들여 신비의 바닷길을 연중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내년 완공 예정으로 짓고 있다. 전시관, 형상체험관, 특산물 판매장, 3D 영상관 등이 들어선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이동진 진도군수는 “불거리, 체험코너 등을 늘리고 국내외 홍보도 강화해 우리나라 대표 최우수 축제로 한 단계 도약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4년 연속 우수축제로 선정되면 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1억 5000만원의 국비와 후원 명칭 사용, 축제 전문가의 자문·평가, 한국관광공사의 해외 조직망을 통한 축제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받고 있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장흥 공공도서관 ‘도서관상’ 단체상

장흥 공공도서관(관장 박경석·사진)이 한국 도서관협회가 수여하는 ‘제 44회 한국 도서관상’ 단체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한국도서관상은 한국도서관협회가 1969년부터 전국의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 등 1700여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도서관분야 최고의 상이다.

한국 도서관협회는 “장흥 공공도서관이 지난 1991년 개관 이래



지역 평생교육과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앞장서 왔으며, 전국 최초로 다문화 이주여성 위한 한글교실을 운영해 지역사회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시상식은 23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추위속 장흥 파파야 수확

지구온난화로 작물재배 한계선이 점차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장흥군 부산면에서 아열대 과수인 ‘파파야(Papaya)’ 수확이 한창이다. 파파야는 황산화 효과와 단백질 분해 효과가 뛰어나고 비티민 A와 C를 다량 함유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결핵 발생지역 주민 전수 검진

전남도-국립목포병원 10월까지...인식 전환 홍보 활동도

전남도와 국립목포병원은 법정감염병(제3군)인 결핵 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환자 발생지역에 대한 거주자 전수 검진을 시행한다.

전수 검진 실시기간은 2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이며 대상지역은 최근 2년간 결핵환자가 발생한 도내 마을의 거주자 전원이다. 양 기관은 순회이동 검진시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전체 주민(마을단위)에 대한 결핵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문의가 현장에서 검사결과를 관

독한 후 감염자에 대해서는 관찰보건의소에서 안치될 때까지 관리해 조기 발견과 치료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결핵 예방과 감염자 조기 발견 및 치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현장 상담, 교육, 폐렴 등을 통해 결핵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 홍보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 대한결핵협회 호남지회 등과 함께 ‘결핵 조기퇴치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올해 결핵 관리사업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최대한 협력하기로 했다.

결핵 발생률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1위이며 인구 10만명당 83명, 전남은 67명이 환자로 보고되고 있다.

이해구 전남도 보건한방과장은 “결핵환자 양상이 20~40대의 젊은 층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치료 실패에 따른 난치성 결핵환자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며 결핵 예방과 퇴치사업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새 일군

“풍요로운 함평 건설 밑거름 되겠다”

안병량 농협 함평군지부장



“지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서 활력있고 풍요로운 함평 건설을 위한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최근 부임한 안병량(55) 농협 중앙회 함평군지부장은 “성공적인 사업구조 개편 정착을 통해 농가 실익증대는 물론 종합업적 전국1위를 지난해에 이어 2연패를 반드시 달성해 함평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군청 등 유관기관·단체와

돈독한 관계 속에서 지역 발전과 사회 공헌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함평 나산출신인 안 지부장은 농협대학을 졸업했으며 지난 1977년 3월 농협에 입사한 후 목포 죽곡동 지점장, 중앙 지점장, 자유시장 지점장 등을 역임했다. /서부취재본부=황은희기자 hwang@

학교폭력을 추방하자

완도군 ‘군민 다짐 선포식’

완도군과 군민들이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분위기 조성에 앞장선다.

완도군은 관내 기관사회단체와 학부모, 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6일 ‘학교폭력 추방 군민 다짐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은 학교폭력 근절 홍보영상 상영과 지역네트워크를 통한 학교폭력 대처방안 특강, 놀이패 ‘신명’의 학교폭력 추방을 다짐하는 의미의 퍼포먼스 ‘누가 내 이야기 좀 들어주래’의 공연으로 이어졌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에 공동 대처하고자 완도군과 완도경찰서, 완도교육지원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군민들은 시가지를 행진하며 학교폭력 추방 홍보캠페인을 전개했다.

김중식 완도군수는 “완도에서 학교폭력을 영연히 추방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으로 우리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www.hiddinkhotel.com

문화수도 중심부에 위치한 -

히딩크관광호텔

문화수도광주!
중심에 위치한 비즈니스호텔 히딩크호텔에서
당신을 VIP로 모십니다.

주요시설 - 객실 - 65개의 객실, 낭만적인 분위기로 보석을 세팅하듯 소중히 모시는 히딩크호텔 웨딩홀 최신시설과 장비가 갖추어진 품격있는 연회장

부대시설 스카이라운지, 커피숍, 정통일식레스토랑, 옥사우나

히딩크관광호텔 광주광역시 동구 불로동 160-1번지 Tel.227-8500/Fax.227-2159

친환경 2012년 태양광 발전 주택보급 실시!

아직도, 전기를 **뜯**내고 사용하십니까? 주택용 태양광발전 선착순 한정 접수

태양광이란(Sanyo Module)?
반도체 기술을 이용하여 태양빛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태양광발전(주택용)설치 후 효과

- ◆ 전기요금 많이 나오는 가정집
- ◆ 누진요금이 걱정인 곳
- ◆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간다
- ◆ 설치시 전기요금 효율 80%절감

2KW 용량의 태양광 발전 설치시 월평균 약 240~300KW의 전력이 생산 가능하고 사용량이늘수록 전기요금을 월 최대 약 25만원을 절약시켜드립니다.

태양광시스템이 적용된 주택의 특징
태양광시스템으로 발전된 전력은 주택전기에 사용되고 남는 전기는 한전으로 역전송됩니다. 역전송시에 한전계량기를 거꾸로 돌림으로서 전기를 약 80~90% 절약시켜 줍니다. 비가오거나 흐린 날에도 태양광은 소수전력이 생산되지만 발전량이 사용량보다 적으면 자동으로 한전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기준용량(사용전력량 상한액)	설치시 청구요금	절감 요금
8만원 (약 415kWh)일 때	약 1,800원	약 78,200원
10만원 (약 460kWh)일 때	약 5,600원	약 94,400원
12만원 (약 500kWh)일 때	약 8,900원	약 111,000원
15만원 (약 540kWh)일 때	약 16,500원	약 133,500원
20만원 (약 610kWh)일 때	약 30,600원	약 169,400원
25만원 (약 680kWh)일 때	약 48,000원	약 202,000원
30만원 (약 740kWh)일 때	약 72,000원	약 228,000원

※기상 여건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태양광 주택 신청안내
신청하신-까지 태양광 센터입니다. 해마다 에너지 관리공단 수요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신청을 했는데도 설치를 못하고 지연하신 주택이나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은 전화 주시면 태양광 전문가가 직접 전화후 방문상담하여 입주일 이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설치금액 : 680~880만원 [설치비포함] (설치 여건 등에 따라 차등)

신재생 태양광 주택 보급 센터 (주)동성에너지 ☎062-512-1180 / H.P 011-659-7001